

다시 태어나도 프로그래머가...



최 영 선

1973년 물리학과를 졸업하면서 4학년때 ASSEMBLER와 FORTRAN을 배웠고, 친한 선배가 중앙전자계산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기처 중앙전자계산소(현 정부전자계산소)에 들어간 것이 컴퓨터에 내 일생을 걸게 된 시작이었다.

교육기간동안 밤을 새워 공부할만큼 컴퓨터는 재미있고 내 적성에 꼭 맞았다. 다음에 한국후지쯔 OS개발부에 옮겨 새로운 분야인 SYSTEM SOFTWARE를 개발하면서 24시간(잠을 자는동안 꿈에 서까지도) 내 머리속에는 LOGIC만이 가득했다. 심지어 맞선보고

약력 : • 73~74 총무처 전자계산소 • 74~78 한국후지쯔 • 86~89 삼도데이터시스템 • 90~현재
에드온시스템 대표이사

와서도 상대방의 이름이나 얼굴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30살이 넘어 후배들보다 머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은퇴하리라 생각했었는데 어느덧 오십의 나이가 가까워오고 있다.

지금도 내 머리는 굳지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자만일까? 착각일까? 다시 선택해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걸 보면 적성에 맞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는 분야라서 싫증 잘내는 내 성격에도 아직 호기심을 갖고 공부해야하는 매력있는 분야임에 틀림없다.

1990년 회사를 독립하면서 그동안 내가 누렸던 일의 성취감을 젊은 후배들이 누리기를 원했고 나와 직원들이 함께 즐겁게 일할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었다. 또 내가 그 동안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면서 느꼈던 행복에 감사하여 사회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창업하고자 하는 직원들을 도와 애드온시스템에서 회사를 10개를 만들고 은퇴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10년이 다 되도록 아직 하나도 독립하지 않는 것을 보면 나의 꿈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

이제 애드온시스템을 더 견실하게 만들고 간부들을 키워 몇 년후에 그들이 애드온시스템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작년에는 멀티미디어연구소 설립과 벤처기업등록을 했고 올해 말이나 내년초 즈음에는 코스닥 등록을 계획하고 있다. 회사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발전을 먼저 추구하고, 사생활과 직장생활의 구별이 별로 없이

개인일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며 어려울 때 배려해 주는 우리 회사의 특성을 직원들이 먼 훗날까지도 잘 이어주리라 믿는다.